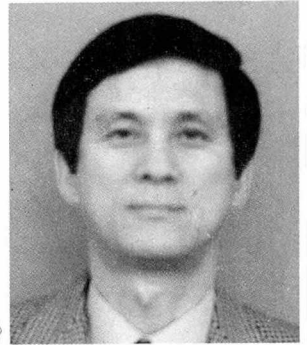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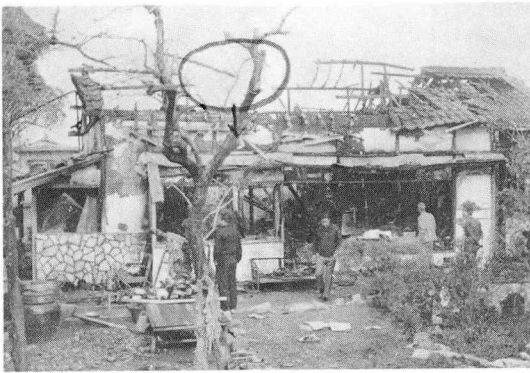


# 화재의 목격상황이 화인조사에 결정적 영향 미치기도



송 재 철  
(치안본부 형사부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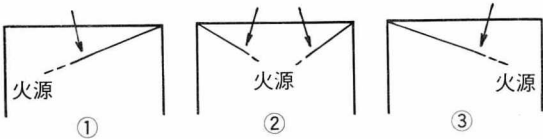
다음의 사진은 지붕이 발소(拔燒)된 출화부의 사진이다. 발화부는 ○표의 직하부로서 발화부와 출화부가 일치되는 현상이다.



▲○표 부분이 출화부분이고 ↓부가 발화부(내부에서 뒷쪽이 나 앞쪽이냐는 여타 소적등으로 밝혀야 한다)

축구 골대와 같은 간단한 구조물의 연소를 가상해 보자.

첫째, 그림 ① ③과 같이 축구 골대의 기둥 주위에 화원(火源)이 존재하며 바(bar)의 한쪽이 소실되게 되면 남은 바는 역학적인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자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취약, 도괴되는(떨어지는) 현상이 되고 화원 가까운 부분은 땅에 재를 떨어뜨



리게 된다.

둘째, 그림 ②의 경우는 바가 기둥 양쪽에 조금씩 남아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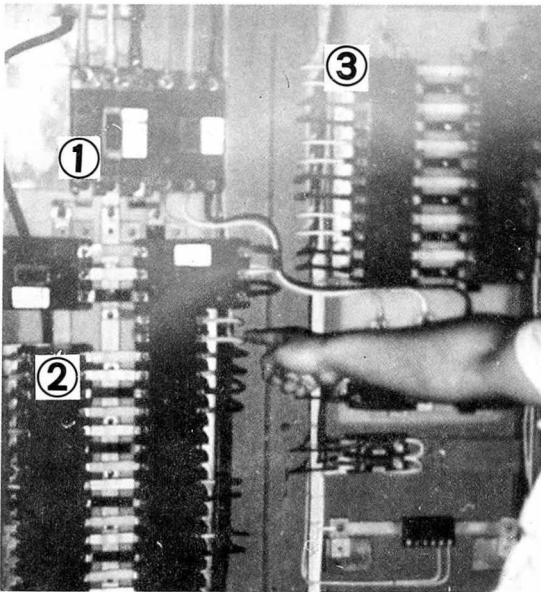
이같이 기둥이나 바의 잔존상태와 같은 연소잔존물의 상태를 귀납적으로 추적하면서 발화부를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소현상 관찰은 소락, 도괴상황외에도 연소의 상승성을 기본으로 하는 탄화심도, 균열(또는 구갑; 龜甲), 용융, 박리(剝離), 변색, 만곡, 주염(走焰)이나 주연(走煙), 훈소(燻燒), 복사, 소사체(동물포함)등 소적관찰이 있지만 예비조사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소적관찰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비조사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발견시간, 발견 위치, 연소음, 연소색갈, 연소냄새 등을 포함하는 발견상황, 이재관계자의 직업, 재산, 부채, 보험 관계 등과 최초 소방작업(소화약제 살포나 주수, 소방 관찰수, 지휘, 작전배치), 소화장비 등의 이동, 건물의 방위, 배치 등 각종 도면, 건물의 양식과 구조, 층수, 중요시설과 위치, 용도 등의 건물상황, 전기, 냉난방, 공조, 방풍, 각종경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주위로부터의 탐문이나 이재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인데 86년 8월 4일 21:55분경 충남 천원군 목천면 남화리 소재 독립기념관 본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있어서의 목격(또는 발견) 상황은 화인조사의 결정적 비중을 갖는 예가 될 수 있다.

두번에 걸친 “꽹”소리(또는 콰콰꽹)로 화재를 각

지하게 된 동기, 경비근무중 발견한 시간과 위치,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북측 서쪽으로부터 1,2번째 석주 사이의 지붕밀 한식 석가래 모양을 낸 FRP(Fibre Reinforced Plastics) 구조물중 용마루쪽에서 전구만한 불꽃이 솟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경위, 화염의 크기, 색 등 모두가 화인조사의 결정적 요소들이 된 것이다.

또 소화를 위해 이동식 CO<sub>2</sub>소화기를 옮긴 행적, 옥상으로 올라가 소화전을 가동시켰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소화에 실패했던 일련의 행적 등은 독립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의아심을 다소나마 진정시키게 된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문제의 분전반이다.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단상 380V의 스위치이고 그 단자에서 강압기 없이 스위치3의 위로 직결되었다.

화재의 발생과 발견경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독립기념관 전기공사업체인 H전업(주) 전공 K(25세)와 B(21세)는 8월 4일 19:00분경부터 본관 실내 조명인 수은등을 켜고 한국인 상의 입선작업을 마친 뒤 21:40분경 분전실로 가서 조명용 메인 브레이커(main breaker; 사진의 1)를 내리고 나올 즈음, 분전실로부터 6m상거한 곳에서 근무중이던 청원경비원 C(25세)는 갑자기 실내 조명이 꺼지자 “왜 불 꺼”라고 소리치면서 순간적으로 발자국소리가 나는 분전실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경비상 필요하니 로얄박스(개관기념식장)쪽 불이라도 두세개 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분전실 열쇠를 갖고 있던 전공 K가 문을 열었고, 경비원 C가 분전반을 비추니 K는 분전반내 왼쪽 위에 있는 커다란 스위치(사진의 1)를 올렸다.

불이 들어오지 않자 C가 K에게 왜 불이 안들어오냐고 물었다(이 분전실은 독립기념관 본관 서반부의 전원 380V/220V를 제어하는 곳으로서 220V용 주조명인 수은등의 분기 스위치들은 기히 ON상태에 있었으므로(사진의 2) 1스위치를 넣는 순간 모두가 부하상태에 들어 갔으나 수은등의 점등시간 delay로 점등이 늦어진 것이다). 전공 B도 밖을 내다보며 불이 안들어왔다고 하자(분전실 문에서 수은등이 직접 보이는 위치가 아니다) 전공 K가 분전반 우측 상단 스위치(사진의 3)의 좌측 스위치(강압기를 사용하여 110V가 공급되어야 할 지붕밀 간접조명등 스위치인 NFB; No Fuse Breaker) 1개를 올렸더니 “퐁”(또는 좌과광)하는 폭음이 들려 나와보니 아무런 이상은 없고 불도 들어와 있지 않았다.

전공 B가 트립된 스위치를 다시 올리자 또 폭음소리가 났다. 아무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 때는 주 조명인 수은등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전공 K와 B는 그대로 퇴근했다. (여기서 “퐁”소리란 표현의 차이로서 전공 K와 B는 이 소리를 먼곳에서 천둥치는 소리 정도로 듣고 퇴근했고 경비원 C는 본관에 관객들이 입장할 때 3 1만세 합성 등을 입체적으로 들려 주기 위한 녹음소리가 불을 켤 때 같이 울려 나오게 되어 있는가 보다 하고 희한하다고 생각했다)

경비원 C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을 떨칠 수 없어 광소리가 났다고 생각되는 천장쪽을 바라 보았다. 그랬더니 본관 북측 서쪽으로 부터 1, 2번째 기둥간 1/3쯤 지붕밑에서 전구만한 것이 빨강개 피어 오르는 것이 보여 경비반장에게 ‘저것이 불꽃이 아니냐’고 소리쳤고, 경비반장 H는 ‘저건 불이야, 신고해야지 하며 뛰어 갔다.

경비원 C는 같은 경비원인 S(33세), Y(34세)와 연 구동에 있던 이동식 대형 CO<sub>2</sub>소화기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소화기는 그대로 놔둔 채 관리동의 층계로 올라 가면서 문이란 문은 다 열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올라 갔다. <계속> 